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자체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25. 10. 1.(수)

선정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나다 순)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은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산업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인공지능(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 30일(수)부터 8월 29일(금)까지 한달 간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 결과, 13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접수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9월 17~18일 서면평가, 9월 24~25일 대면평가를 진행하고 서면(40%) 및 대면(60%)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13개 신청 지자체 :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가나다 순)

사업 주요내용

경상남도는 우주항공·방산·기계 산업 내 3~5개 협력사들의 예지보전*·품질스케줄링 등 공통 현안은 통합 지원하고 개별현장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면(투트랙)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공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현장 민감데이터 처리를 위한 엣지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제조 인공지능(AI)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4개 대학과 협업하여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 및 내재화하고, 인공지능(AI) 실습·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여 인공지능(AI) 교육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비스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 서비스 이상이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예상 및 유지·보수

** 사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처리

대구광역시는 자동차부품 세부업종별 제조·공정서비스 분야 선도 인공지능(AI) 모델 8개 과제를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증사례를 기반으로 지역 내 인공지능 전환(AX) 성공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접근성이 우수하고 청년창업자가 밀집한 동대구벤처밸리 내 인공지능(AI)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이 GPU팜 등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과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정밀화학 업종의 중소기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솔루션 보급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 수준에 따른 다각적·심층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총 30개사 내외) 한다. 또한,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허브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통합 인공지능(AI) 활용 플랫폼을 결합한 인공지능(AI)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화학·철강·세라믹 등 소부장산업, 제약·식품 등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전남 주력산업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수준을 심층 진단해 맞춤형 인공지능(AI) 설비 및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특성에 적합한 대표 인공지능(AI) Agent를 개발 및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AI) 오픈 플랫폼(MLOps, AI Agent)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대표 및 재직자, 지역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AI)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핵심산업인 생명공학(바이오) 분야와 인공지능(AI)을 연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모델('AI+B')을 구축하고 제주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 연계, 인공지능(AI) 솔루션(LLM)을 개발·실증한다. 또한 공공 GPU/AI 팜, 클라우드 AI, AI 테스트베드(3개소) 등 AI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식품, 화장품(뷰티), 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에 확산·적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한다.

지원내용

AI 활용률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전환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자체별 약 70억원 국비를 지원한다.

분야	세부 지원내용(예시)
AI 솔루션 개발·보급	■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AI 솔루션 개발·실증, 지역 중소기업의 AI 솔루션 도입·활용, AI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AI 인프라	■ AI 실증 테스트 베드, 클라우드 기반 AI 환경 구축, AI 모델 학습 인프라 구축, AI 보안 테스트베드 구축 등
AI 인력양성	■ 도메인 특화 AI 융합인력 양성·교육, 기업 재직자 AI 활용역량 강화, AI 산학협력 프로젝트 및 인력교류, AI 전문인력 파견 등

산업현장 기술혁신 및 국가경쟁력 제고 '25년 10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1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10월 수상자로 현대자동차(주) 임진승 팀장과 (주)커넥티드인사이트 이재준 대표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500만원)을 수여하는 우수과학자 포상제도이다.

* 동 시상제도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용

수상자 선정

현대자동차(주) 임진승 구동설계1팀장

현대자동차(주)는 과기정통부로부터 15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 혁신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실현을 추진해 왔다.

*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22.04.01~'25.12.31, 268백만원) 등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임진승 EV(전기차)구동설계1팀장은 코어강판^{*}의 두께를 줄이는 기술과 냉각 개선을 통해 원심력을 극복하는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과 속도를 갖춘 EV용 모터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고,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전기 모터나 변압기에서 자속을 전달하는 철심 재료로 얇은 규소강판을 적층해 만든 전자기용 강판

임진승 팀장은 "모빌리티 전동화 시대에 들어선 이 시점에 전기차용 모터시스템과 요소 신기술 양산 개발을 위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함께 지속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주)커넥티드인사이트 이재준 대표

(주)커넥티드인사이트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1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이후, 약 4년간 연구개발비 14억 5천만원을 자체 투입하고 정부로부터 13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 고속 동기화 방식 구현, AOI 검사기 실용화 등 다양한 국책과제를 수행하였다.

* 종기부,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핵심부품(COF, D-IC)의 미세결함 검사장치 개발('23.04.01~'25.03.31, 300백만 원) 등

그 결과, 기업의 연구 수행 능력 제고와 함께 특허 7건 등록, 특허 25건 및 상표 13건 출원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했으며 우수한 신제품으로 평가받은 태양광셀 프린터(출력)&소터(분류) 자동비전 검사기로 '24년 과기정통부로부터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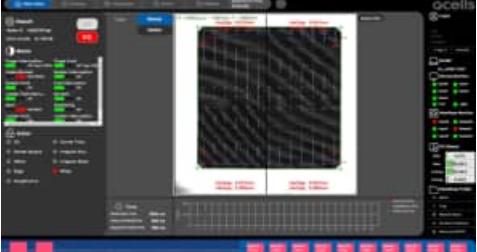
* IR52 장영실상 :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제품 및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연구개발조직을 과기정통부가 선정·포상(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자 사기 진작 기여('91년~)

다양한 성과 가운데 이재준 (주)커넥티드인사이트 대표는 20여 년간 축적한 영상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태양광 셀 전용 AOI 검사기의 설계부터 생산,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 구축까지 전 과정을 국내 독자 기술로 구현하였고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해외 경쟁사 대비 검사 속도 120% 향상, 공장투자 대비 효율 130% 향상, 원가 300% 절감 등

이재준 대표는 “과학기술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수단이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5년 10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현대자동차 임진승	커넥티드인사이트 이재준
	
아이오틱5N 적용 고성능 모터시스템	태양광 셀 AOI 검사기 SW 화면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APEC 손님 맞이하며 세계무대에서 달리다

국토교통부, 2025. 10. 22.(수)

자율주행 셔틀 운행개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APEC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오토노마스 에이투지)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모두 올해 9월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자율주행 셔틀 노선별 운영계획

구분	노선							운영 기간	인원
A형 셔틀버스	서편환승주차장-동궁원-캐식턴리조트-라한셀레트-일성콘도-콩코드호텔-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더 케이호텔-동편환승주차장-보덕동 행정복지센터-경주월드-천군매립삼거리-서편환승주차장							'25.10.26.(일) ~'25.11.1.(토)	20명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B형 셔틀버스	엑스포대공원-경주월드-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중도타워-보덕동행정복지센터-엑스포대공원							'25.10.27.(월) ~'25.10.30.(목)	9명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0회차								18:00

다만, APEC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동안은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및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본회의 종료 이후인 11월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은 APEC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자율주행 예약 누리집(<http://its.gyeongju.go.kr/autobook.do>) 또는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 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예약 승객 외에도 현장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행을 앞두고 운행구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행사 기간 중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운행노선 및 차량

구분	노선도	차량사진
보문단지 순환 노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 노선		